**천국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

<마 13:24-32>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의 주제는 단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생명, 기쁨이 물결치는 나라이며,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몸소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 즉 ‘하늘 나라’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13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들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머지않아 하늘에서 그 나라가 분명한 모습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은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가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될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구절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과 같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천국=어떤 사람이란 뜻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는 말을 천국=열 처녀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모습 속에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그 열 처녀가 맞은 상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뒤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주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곧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칭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첫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두시고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인류를 그 나라에로 초청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초청에 응하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복음의 증인들로 온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후 그 증인된 천국의 자녀들이 가는 자리에서는 다시 동일한 복음의 생명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천국의 자녀들이 생겨나 다시 좋은 씨앗으로 세상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에 보니까,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지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라난 다른 풀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것들을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원수는 마귀를 의미하고,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즉 부지불식간에 마귀는 천국의 자녀들 가운데 들어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을 악의 씨앗으로 뿌려놓고 간 것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는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거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로 하여금 그 둘을 구분하게 하겠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이 심겨진 곳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속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의 종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합니다. 가라지의 기운에 눌려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인은 자신의 밭에 몰래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고 간 자가 누구인지, 그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인의 태도가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농촌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논의 벼들 속에서 피를 솎아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선 벼와 피를 구분하는 법을 간략히 배우고, 곧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중하게 그 둘을 구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고개를 들고 그날 우리가 해야할 일의 엄청난 양을 가늠하고나서, 저는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급수정했습니다. 대충 피 같이 보이면 과감히 뽑아냈습니다. 일은 속도가 붙었고, 제 손에 들려진 피의 숫자와 함께 뽑힌 벼의 숫자도 늘어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주인 아저씨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학생! 그러다 멀쩡한 벼 다 뽑겠어! 일을 도와주러 왔으면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뭐야!” 물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작물들을 들여다 보는데, 어린 마음에 갑자기 속에서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싶었으면, 왜 우리 같은 초짜들에게 이 일을 시켜? 그렇게 잘 하는 자기가 혼자 하지.” 그때 제가 느끼기에 그 논 주인은 자기 벼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저를 추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저를 추궁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자신이 얻을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의 논밭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약간의 곡식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가라지를 뽑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주인, 즉 예수님은 그 보통의 주인들과 다릅니다. 그의 일차적 관심은 경제적 이득이 아닌 듯 합니다. 그보다는 곡식 하나 하나의 생명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일 곡식과 가라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 주인도 가라지를 뽑아내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곡식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인 중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권면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처럼 음행이나 이단과 같이, 그 잘못이 분명하고 그 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교회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마귀의 영향도 받으며 삽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회심하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 중 하나는 겸손한 판단 유보입니다.

때로는 누가 천국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께서 명확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처럼, 마귀의 자녀들을 제거하려다 천국의 자녀들까지 다치는 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자녀들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끝까지 품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천국은 자비와 인내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을 미루시는 것이지, 절대 취소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추수 때, 즉 세상 끝에는 천사들을 통해 그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둘이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게 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둘 경우, 상식적으로, 그 둘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이면적 의미, 즉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초자연적인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자녀들도 이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승리가 약속된 싸움입니다.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이를 통한 성장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영원히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천국의 자녀들은 어느 상황에서든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천국의 자녀들에게 죄는 더 이상 사망을 부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처럼, 죄는 그 뒤에 이어지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의 더 온전한 연합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좋은 씨앗’인 이유는 이처럼 힘든 투쟁의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의 자녀들에게는 마귀의 자녀들 안에는 없는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DNA이고 성장과 결실의 DNA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코 그가 자기 곡식들에 대해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좋은 씨앗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자녀들을 믿고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천국은 믿음과 소망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분명한 모습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늘 자라는 과정 중에 있는 천국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인내, 믿음과 소망을 통해 지탱되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를 아끼고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회개와 성찰을 통한 성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씨앗이 지닌 놀라운 성장 잠재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초반엔 미미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있는 가치의 위대함으로 인해 큰 나무로 자라나고, 결국엔 주위의 많은 생명들을 그 아래에 품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가라지와 구분되지 않는 곡식처럼 너무도 미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천국의 모습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천국의 자녀들로서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승리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